

추모 예배 순서

집례_담당 교역자 또는 가장

예배시작 집례자

오늘은 고 ○○○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직 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추모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상기도 다같이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찬 송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같이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언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말씀봉독 여호수아 1:2-6 다같이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 씬 고인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집례자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좋아하거나 환영하거나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거부하고 증오하며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창조될 때, 죽기 위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 위해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늘 가까이 있으나 인간은 죽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죽음 때문에 이별하게 될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고비에 직면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고인이 하나님의 품안에 안겨있음을 믿음의 영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과 이별한지 --- 주기가 됩니다. 고인께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겨주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고인의 빈자리가 커보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빈자리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인의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로만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습니까?

1)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선물인 언약과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땅은 바로 언약의 땅이요 말씀의 땅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성도를 영원히 영화롭게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부활과 영생 그리고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인의 빈자리에 말씀과 언약이 채워지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5절 중반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2)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성경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기 남아 있는 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고인은 우리 곁에 없지만 고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여기 남아 있는 자들과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냥 절망만 하며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근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물려주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유할 자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인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다 이뤄내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도 때가 되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생각하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에 계신 고인이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이 시대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 도 집례자
주기도문 다같이